

## 해방 직후 북한 잡지 연구

- 미군의 '노획 북한 문서' 소장 잡지들을 중심으로 -\*

정용욱(서울대학교 역사학부 석좌교수)

### 논문요약

이 글은 미국 국립문서관(National Archives II) 소장 '6·25전쟁기 미군의 북한 노획문서' 가운데 해방 직후 북한에서 간행된 잡지의 소장 상황을 실물 조사를 통해 소개하고, 이어서 잡지들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그 성격과 수록 내용, 사료적 가치 등을 검토했다. 노획문서는 6·25전쟁 중 미군이 조직적 또는 우연적으로 노획한 각종 기록물이고, 해방 이후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와 6·25전쟁 중 북한군의 동향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하고 방대한 문헌들을 간직한 그야말로 한국현대사 자료의 보고다.

이 글은 북한에서 나온 잡지 유형을 (1) 종합이론잡지, (2) 종합대중잡지, (3) 화보 잡지, (4) 시사 잡지, (5) 선전지, (6) 교양지, (7) 어린이 잡지, (8) 사회단체 발행 잡지, (9) 문예지, (10) 각 부문 또는 전문 잡지, (11) 학술지의 11개로 나누어, 각각의 발간 현황과 수록 내용, 성격 등을 분석했다.

발간 주체의 측면에서 북한 잡지들은 전문가 집단, 지식인 집단이 내용을 채우는 방식으로 잡지 발행에 참여하고, 또 초기에는 전문가 조직이나 사회단체가 잡지 발간을 주도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정권기관과 합작하거나 정권기관이 발간을 주도하는 식으로 변화한다. 수용자와 독자의 측면에서 북한 잡지들은 뚜렷하게 대상 독자를 상정하여 발행되었다. 해방 직후 북한의 잡지들은 개별 독자들을 유통 대상으로 하기보다 배포망을 통해 체계적으로 보급되었을 것이다.

주제어: 노획문서, 북한 잡지, 6·25전쟁, 미군, 이론지, 선전지, 대중잡지, 시사잡지, 문예지, 학술지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진흥사업단)의 한국학국영문사전편찬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AKS-2022-CKD-1230004).



## I. 머리말

이 글은 미국 국립문서관(National Archives II) 소장 '6·25전쟁기 미군 노획 문서'(이하 '노획문서') 가운데 해방 직후 북한에서 간행된 잡지의 소장 상황을 소개하고, 이어서 잡지들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그 성격과 수록 내용, 사료적 가치 등을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노획문서관 미국 국립문서관 소장 자료 가운데 해외 각지에서 미군이 노획한 문서들로 구성된 문서집단(Record Group) 242의 하나로 분류되어 있는 6·25전쟁기 미군이 한반도에서 노획한 문서들을 지칭한다. 노획문서는 6·25전쟁 중 미군이 조직적 또는 우연적으로 노획한 각종 기록물이고, 해방 이후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와 6·25전쟁 중 북한군의 동향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하고 방대한 문헌들을 간직한 그야말로 한국현대사 자료의 보고(寶庫)다.

노획문서의 존재가 국내외 학계에 알려진 지 이미 오랜 시간이 경과했지만 소장 문서들에 대해 아직 포괄적인 한글 목록이 작성되지 않았고, 수록 자료들에 대한 체계적 조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원하는 자료에 접근하는 데 여전히 애를 먹고 있으며, 학계 전체 차원에서도 노획문서 소장 자료를 기초로 한 구체적인 연구 전망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북한 연구가 증가하고 노획문서를 이용한 연구 성과들이 적지 않게 제출되었다. 이제 노획문서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해방 직후 북한 사회를 깊이 있게 연구할 수 없는 단계가 되었지만 기이하게도 정작 노획문서 자체와 수록 자료 전반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와 연구가 매우 저조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무엇보다 1,400개 이상의 문서상자로 구성된 방대한 자료 분량이 노획문서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와 연구를 가로막고 있다.

비유하자면 자료 보고라고 해서 문을 열었더니 각종 자료 뭉치가 산더미처럼 어지러이 쌓여 있는데 연구자는 정작 어떤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 그 보물의 가치와 중요성은 무엇인지, 그 보물을 어떻게 가공하고 활용해야 할지 짐작도 하지 못한 채 발아래 자료뭉치부터 풀어헤쳐서 문서 하나하나를 제 눈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

이 글은 노획문서 가운데 해방 직후 북한에서 간행된 잡지의 소장 상황을 실물 조사를 통해 소개하고, 잡지들의 유형별 성격과 수록 내용, 사료적 가치 등

을 검토하고자 한다. 신문과 잡지는 근대 이후 역사 연구에서 기초자료에 해당하고, 이는 북한사 연구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독자들은 이 글을 통해 연감을 통해서나 단편적으로 확인할 수 있던 해방 직후 북한의 잡지 간행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의 1차적 서술 목표는 노획문서 소장 북한 잡지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 전달이다. 북한 잡지의 종류와 분류 형식, 발행기관과 편집인 등 해방에서 6·25 전쟁에 이르는 시기 북한에서 발행된 잡지 자료 전반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와 해당 잡지에 대한 간략한 해제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잡지 수록 내용에 대한 분석은 발행기관의 성격과 활동, 편집인과 필자들에 대한 보다 치밀한 분석과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학계의 추후 과제가 될 것이다. 이 글은 그러한 작업을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다만 4~5년에 불과한 매우 짧은 시기이지만 해방 직후 북한에서 잡지 발간 동향은 급격한 정치사회적 변화에 따라 발간 주체, 잡지 종수, 종별 비중 등의 측면에서 변화가 크고, 다른 한편으로 양적 증가가 두드러졌다. 이러한 잡지 발간 동향의 변화는 해당 시기 북한 사회의 정치·사회적 의제 설정이나 이를 주도하던 북조선로동당과 정권기관들의 잡지 간행 정책, 또는 그와 관련한 이들 기관의 선전·선동 정책의 체계와 방식 등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 II. 노획문서의 잡지 소장 실태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사가 간행한 『조선중앙연감』 1949년판, 1950년판, 1951~52년판에 따르면 1946년 말 간행 잡지 종수는 29종, 1947년 22종, 1948년 39종, 1949년 46종으로 1946년부터 1949년까지 4년간 발간 종수가 많이 늘었고, 다양해졌다. 발간 부수도 1946년 말까지 443,800부, 1947년 1,313,500부, 1948년 3,169,611부, 1949년 5,442,506부로 1947년에서 1949년 사이에는 매년 200만부 가량 폭증했다. <표 1>은 해방 이후 1949년까지 북한에서 발행된 잡지 종수, 부수를 나타낸다.<sup>1)</sup>

1)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연감』 1949년판,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pp. 152~153;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연감』 1950년판,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pp. 387~388;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

〈표 1〉 해방 직후 북한의 연도별 잡지 발간 종수와 부수

	1945. 8~1946년 말	1947년	1948년	1949년
종 수	29	22	39	46
부 수	443,800	1,313,500	3,169,611	5,442,506

노획문서 전체를 열람한 방선주 박사가 2003년 펴낸 『북한노획목록』에 의하면 노획문서에 수록된 연속간행물 종수는 무려 80종이다. 위 표는 1949년까지의 발간 현황을 제시했고 1950년에 발간된 종수가 몇 건이나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949년까지 『조선중앙연감』이 조사한 잡지 종수의 2배에 가깝다. 방선주가 제시한 잡지 목록은 남한이나 연변에서 발행한 잡지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사실은 동종의 잡지인데 제호가 바뀐 잡지를 모두 별건으로 처리했다.<sup>2)</sup> 필자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방 이후 북한에서 유통된 잡지는 방선주가 제시한 것보다 더 다양하고 종수도 많을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노획문서에는 교지처럼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았던 잡지들도 있고,<sup>3)</sup> 남한과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에서 출간된 잡지도 다수 있다.

현재 시점에서 연구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노획문서 자료 목록은 전쟁 중 미군이 전장(戰場)에서 도쿄 소재 극동군/유엔군 사령부(FEC/UNC)로 모아들인 자료들을 미국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선적목록, 즉, “노획문서 주해 목록(Annotated Lists: Records Seized by U.S. Military Forces in Korea, 1977년 공개)”이 유일하고,<sup>4)</sup> 1990년대부터 기밀 해제되어 새로 공개된 문서들에 관해서는 방선주가 자료 제목만 간단히 제시한 “선별노획문서 목록(2002)”을 참고할 수 있다.<sup>5)</sup> 하지만 전자의 경우 작성 목적이 운송과 선적의 필요, 즉, ‘교

양연감』 1951-52년 국내판,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pp. 394~395 참고

- 2) 방선주, 『북한노획목록』, 춘천: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03, pp. iv~xii.
- 3) 노어학교 학생자치회가 펴낸 『해방』(1946. 8. 15.)이 그 예다. 선적문건번호 2006-13-1, 미국 국립문서관 노획북한문서철, 문서상자 224.
- 4) 이 목록은 “국립중앙도서관 > 디지털컬렉션 > 해외 한국 관련 기록물 >”에서 열람할 수 있다. 웹페이지(<https://www.nl.go.kr/NL/contents/N20401000000.do>)의 14) “Shipping Advices for Korean-Language, Chinese-Language, Japanese-Language, and Russian-Language Records Captured in Korea: 01/1952- 01/1958” 참고
- 5) 방선주, “미국 국립공문서관 소장 RG 242 내 ‘선별노획문서’ 조사연구.”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의 한국현대사자료』 방선주 저작집 2권, 서울: 선인, 2018 참고

부목적(交附目的)을 위한 확인절차'에 있기 때문에 그 목록으로 실제 노획문서의 개요나 노획문서 중 잡지의 소장 실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방선주가 작성한 “선별노획문서 목록” 역시 문서상자 별로 수록된 자료 제목을 개략적으로 제시했을 뿐이고 구체적인 서지 정보를 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잡지 자료는 별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

결국 노획문서의 잡지 수록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그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1,400개가 넘는 문서상자를 일일이 열어서 현물을 확인하는 것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이 글은 노획문서 중 잡지의 실물 확인을 통해서 소장 실태와 잡지의 유형별 특징, 간행 취지, 발행인 편집인 필자 등 간행 기관·단체와 관련 인물에 대한 분석, 제호 변경과 발간 상황 등 서지적 특징을 분석하고, 이어서 잡지 수록 내용과 성격 분석을 통해서 해방 이후 6·25전쟁까지 북한에서 유통된 잡지 자료의 성격과 특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북한 당국이 발표한 해방 직후 잡지 발간 상황을 살펴보자. 『조선중앙연감』 1949년판은 잡지를 종합이론잡지, 종합대중잡지, 사회단체 발행 잡지, 시사잡지, 문예지, 각 부문 또는 전문잡지, 학술지의 7개 유형으로 분류했고, 1950년판 연감은 이론, 시사, 문예, 학술, 대중잡지 총 5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1949년의 분류에서 사회단체 발행 잡지와 각 부문 또는 전문잡지가 빠졌다. 두 유형을 모두 대중잡지로 분류한 것으로 보인다. 연감은 간기를 순간(旬刊), 반월간(격주간), 월간, 기간(期間)으로 구분했다. 기간은 격월간, 분기간 또는 부정기간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요 잡지 제목들과 그 발행기관, 발행소를 유형 분류하여 제시한 1949년 연감을 기준으로 하여 해방 직후 북한에서 간행된 잡지들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sup>6)</sup>

6)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연감』 1949년판, pp. 152~153.

〈표 2〉 해방 직후 북한에서 간행된 잡지의 유형과 발행기관·발행소 일람

종합이론잡지	인민(내각), 근로자(조선노동당)
종합대중잡지	새조선(인민출판사), 태풍(태풍출판사) 우리동무(인민출판사), 농민화보(농민출판사)
사회단체 발행 잡지	로동자(직업총동맹), 농민(농민동맹), 청년생활(민주청년동맹), 조선녀성(여성동맹), 어린동무(교육성)
시사잡지	순간북조선통신 → 순간통신(순간통신사), 국제평론(인민출판사), 활살(활살출판사)
문예지	문학예술(문화예술총연맹), 조쏘문화(조쏘문화협회) 아동문학(문화예술총연맹), 영화예술(영화예술사)
부문 또는 전문 잡지	경영계산(재정성) → 재정금융, 인민교육(교문직업동맹), 농림수산(농림수산기술연맹), 대중과학(공업기술연맹), 산업(산업성), 소비조합(북조선소비조합), 체신 → 민주체신(체신성), 문명상업과 지방산업 → 민주상업(상업성) 사법시보 → 사법(사법성), 인민체육(교육성), 계획경제(국가계획위원회), 경영계산(경영계산연구회), 시설(내무성 시설처), 노동(노동성),
학술지	역사제문제(조선역사편찬위원회) 조선어연구(어문연구회), 경제제문제(김일성대 편집부)

주: 점선 위는 1949년판 연감, 아래는 1950년판에 의거하여 작성. ‘→’ 는 제목 변경을 표시.

〈표 1〉은 1949년까지 발간된 잡지 종수를 46종이라 했는데 위 표에 제시된 잡지 제목은 모두 35개다. 1950년 연감은 “중전 사회과학 부분의 잡지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자연과학 부분의 잡지도 점차 증가되어 1949년 상반기에는 7종의 자연과학 잡지가 발간되었다.”고 했는데, 이를 감안하면 1949년에 파악된 46종의 잡지 가운데 제목이 제시되지 않은 잡지는 자연과학 7종을 제외더라도 나머지 4종의 제목이 위 표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sup>7)</sup>

〈표 2〉에서 잡지의 발행기관과 발행소를 고려하면 당시 북한 잡지들은 많은 부분 정부기관과 각 정당·사회단체의 기관지 성격을 가지면서 동시에 대중 계몽

7)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연감』 1950년판, p. 387; 『조선중앙연감』 1951~1952년판에도 잡지 제목은 31종만 나와 있다, p. 395.

과 선전 역할을 지향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남한에서도 각종 사회·문화 단체와 연계를 가지며 발행되는 잡지들이 없지 않았으나 정부기관이 발행한 잡지는 많지 않았고, 동인지의 성격을 가진 잡지들이 많았던 것과 대비된다.

그러면 북한 당국이 발표한 잡지 종수를 염두에 두면서 노획문서는 실제 어떤 잡지들을 소장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이하 노획문서에 수록된 잡지들을 몇 개의 유형으로 분류한 뒤 개별 잡지의 제목과 발행 기관(발행소), 창간일, 발행부수, 책임주필 또는 발행인과 편집인을 제시한다. 잡지 유형은 (1) 종합이론잡지, (2) 종합대중잡지, (3) 화보 잡지, (4) 시사 잡지, (5) 선전지, (6) 교양지, (7) 어린이 잡지, (8) 사회단체 발행 잡지, (9) 문예지, (10) 부문 또는 전문 잡지, (11) 학술지의 11개로 나누었다. <표 2>가 제시한 유형을 참고하고, 잡지 발행기관, 수록 내용, 간행 목적 등을 감안하여 유형을 몇 가지 추가했다. 아래 표는 노획문서에 소장된 잡지들을 현지 조사를 통해서 실물을 모두 조사한 뒤 작성했고, 실물을 통해서도 미처 확인할 수 없는 서지 사항은 남한에서 나온 『북한논저목록』, 『동북아 한인 언론의 발자취 1945~1949』, 북한에서 나온 『조선대백과사전』 등 최근의 연구 성과와 각종 논문들을 활용하여 보충했다.<sup>8)</sup> 노획문서에 소장된 잡지 가운데 38선 이남이나 중국, 러시아, 일본에서 나온 잡지는 이 목록에서 제외했다.

<표 3> 노획문서 소재 북한 잡지의 유형 분류와 소장 실태

유형	잡지명	발행 기관	창간일, 발행주기	발행부수	발행인, 편집인
종합이론잡지	근로자	북로당	1946. 10. 25, 월간 또는 반월간	40,000	태성수, 기석복
	인민	인민위원회	1946. 11, 비정기, 월간		리청원, 허정숙, 류문화, 정국록
종합대중잡지	새조선	민주조선출판사	1947. 12. 10, 분기간		전재경, 방희영
	태풍	태풍출판사	1948. 3. 2, 반월간		김민우

8) 방선주, 『북한논저목록』; 이신철 외, 『동북아 한인 언론의 발자취』,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3; 백과사전출판사 편, 『조선대백과사전』,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1995.

유형	잡지명	발행 기관	창간일, 발행주기	발행부수	발행인, 편집인
화보 만화 잡지	호랑이	로동신문사	1946년 하반기, 부정기	10,000	태성수
	활살	만화잡지사	1948년 상반기, 월간 또는 격월간	10,000 ~15,000	장진광
	조선화보	조선화보사	1948, 격월간, 월간	5,000	리교신, 리문빈
	농민화보	농민신문사			
시사 잡지	보도	민주조선사	1947. 3. 15, 격월간		한재덕
	순간통신	순간통신사	1947. 7. 21, 순간		박무, 김창건
	국제평론	민주조선 출판사	1947. 8. 1, 월간	7,000 ~17,000	김민우, 리순화
선전지	선전원수책 선전원수첩	북로당 선전선동부	1947. 1. 15, 월간	30,000 ~50,000	
	선동원수첩	문화선전성	1950. 1, 분기간		
	조선인민군 선전원수책	민족보위성 문화훈련국	1949. 9, 반월간		노인희, 천률
	선전원, 선전자	문화선전성	1948. 2.	30,000	
	정치지식	조선로동당 선전선동부	1952. 4, 반월간, 월간		
	당열성자들에게 주는 주간보	조선로동당 서울시당	1950. 8. 13.		
교양지	대중과학	북조선공업 기술총연맹	1947. 8, 월간	10,000	리병제, 김익근
	자연과학	국립인민출판사	1949. 1.	8,000 ~10,000	도상록
	과학세계	국립출판사	1949. 6. 15, 월간		박승극
	소년과학	국립인민출판사	1949. 6. 20, 월간		방히영
	새 삼천리	평양학원	1946년, 월간(?)		기석영

유형	잡지명	발행 기관	창간일, 발행주기	발행부수	발행인, 편집인
어린이 잡지	어린이동무	아동문화사, 교육성 교육국	1946. 1.		김인숙, 조정국, 송진파 등
	아동문학	어린이신문사	1947. 7. 10, 월간		림성식, 김인숙
	우리동무	국립인민출판사	1949. 4. 7, 월간	10,000	방히영
사회 단체 발행 잡지	조선녀성	민주여성총동맹	1946. 9. 6.	15,000	진백옥 김운죽
	청년생활	북조선민주 청년동맹	1948. 1. 25, 월간	15,000	김련호
	로동자	북조선직업 총동맹	1948. 2. 15.	15,000	박병서
	농민	북조선농민동맹	1948. 5, 월간	20,000	리호남, 박경섭
	소년단	북조선민주 청년동맹	1949. 7, 월간	20,000	김련호
	조국보위를 위하여	조국보위후원회 중앙본부	1949. 10.		리기영
문예지	건설	북조선문학 예술총동맹	1946. 12.	7,000	
	문학예술	북조선문학 예술총동맹	1948. 4. 25, 월간	7,000	정률, 안함광
	문화전선	북조선예술 총연맹	1946. 7. 25, 분기간		한설야, 김조규
	조선문학	북조선문학동맹	1947. 9. 15, 월간	30,000	리기영, 안함광
	조쏘문화	조쏘문화협회	1946년 중반, 분기간		리기영, 리찬, 박길룡, 임화
	조쏘친선	조쏘문화협회	1949. 10. 10, 월간		리기영, 박길룡

유형	잡지명	발행 기관	창간일, 발행주기	발행부수	발행인, 편집인
학술지	역사제문제	조선역사편찬위원회	1948. 7, 월간	20,000	
	조선어 연구	조선어문연구회	1949. 3. 21, 월간	15,000	조선어문연구회 편집위원회
	경제의제문제	김일성종합대학 경제법학부	1949. 4. 25, 월간		한규학
	교육과학	북조선교원문 화일꾼직업동맹	1949. 5. 1, 월간	10,000	
	문화유물	조선물질문화 유물조사 보존위원회	1949. 12. 30, 분기간	3,000	이태진
부문 전문 잡지	문명상업과 소비조합	북조선인위, 북조선소비조합	1946. 4, 격월간	10,000	김장환
	문명상업과 지방산업	북조선인위, 상업성	1948. 1, 격월간	7,000	로민
	민주상업	상업성	1948. 11. 20, 격월간		조정국
	소비조합	북조선소비조합	1948. 1, 월간	5,000	변경하
	인민교육	북조선교원문화 일꾼 직업동맹, 교육성	1946. 9. 15, 분기간, 격월간(1948), 월간(1949)	20,000	김일선, 주송남, 김철성, 김한성
	조선농업	북조선농업연구 협회, 북조선농림수산 기술총련맹	1946. 9, 월간	5,000	명재익
	농림수산	북조선농림수산 기술총련맹	1947. 2, 월간	5,000 ~8,900	정홍근, 리규송, 전창하
경영계산	재정성 경영계산연구회	1947. 11. 1, 간행주기 불명	20,000	김종환	

유형	잡지명	발행 기관	창간일, 발행주기	발행부수	발행인, 편집인
	재정금융	재정성	1949. 9. 10, 월간	5,000	윤형식, 방동명
	체신, 민주체신	체신성	1948. 6. 20, 분기간, 월간	5,000	박세영, 김정주
	사법시보	사법성	1948. 8. 15.	3,000	
	산업	산업성	1948. 8. 월간	10,000	리문환, 진유협
	공업지식	북조선공업 기술총연맹	1949. 1. 월간	7,000	송병태, 조연호
	인민체육	교육성	1949. 2. 28, 월간	5,000	궁선홍
	노동	노동성	1949. 3. 15, 분기간, 격월간	7,000	고창훈, 길원팔
	인민보건	보건성	1949. 3. 31, 월간		노진한, 안지연
	계획경제	국가계획위원회	1949. 5. 25, 계간	5,000	방하영
	농림과학	농림성 농림과학연구소	1949		조두서, 리용석
	인민항공	북조선인민 항공협회	1949, 월간	7,000	신태은
	군사지식	민족보위성 전투훈련국	1950. 2. 월간		

주: 발행 기관은 창간 당시 발행소, 발행인·편집인은 창간일~1950년까지 조사

필자가 파악한 바로는 노획문서 수록 잡지들 가운데 38선 이북 지역을 발행지로 하는 잡지는 모두 62종이다. 이 숫자는 교지와 같이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은 잡지는 제외한 수치다. 하지만 동일한 성격의 잡지인데 제호를 변경한 잡지들을 감안하면 그 종수는 모두 57종이다. ‘부문 또는 전문 잡지’, ‘선전지’로 분류된 잡지 가운데 제명(題名)을 바꾸어가며 발행된 잡지들이 있다. 위 표는 해방 직후 북한에서 발행된 잡지들을 11개의 유형으로 분류했는데 그 가운데 ‘부문 또는 전문 잡지’가 20종으로 가장 많다.

〈표 4〉 노획문서 수록 잡지의 창간 년도별 종수

	1946년	1947년	1948년	1949년	1950-52년
종 수	12	10	15	20	4

〈표 3〉에서 제시한 잡지들의 창간 년도를 조사하면 1946년 창간 잡지는 〈표 4〉에서 보듯이 12종이고, 1947년 창간 잡지는 10종이다. 합하면 22종이다. 앞의 〈표 1〉에 따르면 1946년 연말까지 간행된 잡지 종수가 모두 29종, 1947년 연말에는 22종이다. 1년 사이에 7종이 사라진 셈인데, 1946년 연말까지 등 록한 잡지 가운데 노획문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잡지는 17종이다. 1945-46년에 창간된 잡지 가운데 2/3 가까이가 노획되지 않았거나 일찌감치 사라진 셈이다. 노획되지 않았거나 단명한 잡지들이 어떤 잡지들인지 궁금하다.

### III. 해방 직후 북한에서 간행된 잡지의 종류와 성격

〈표 3〉에서 제시한 62종의 잡지들 가운데 창간일과 실물을 확인할 수 없는 『농민화보』를 제외한 61종 중심으로 해방 직후 북한에서 간행된 잡지의 종류와 성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 1. 잡지 유형과 시기별 발간 동향

〈표 4〉에서 보듯이 노획문서 중 잡지 종수를 창간년도에 따라 분류하면 1949년이 20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1948년 15종, 1946년 12종, 1947년 10종이고, 1950-52년도 4종이 있다. 1949년도에 가장 많은 잡지가 창간되었고, 정부 수립일인 1948년 9월 9일 이후에 창간한 잡지들이 61종 중 절반가량이 된다. 정부 수립이 새로운 잡지의 창간에 일종의 동력이 되었다. 1948-49년에 창간을 주도한 잡지들은 ‘부문 또는 전문 잡지’들인데, 대부분이 사실상 정부 각 기관의 기관지, 또는 기관과 조직적으로 연결된 단체가 발간한 잡지들이다. 정부 각 기관이 실무 행정의 필요에서 분야별로 전문 잡지들의 창간을 주도

했다.

1950년 이후 창간한 잡지들은 문화선전성이 발행한 『선동원수첩』,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가 발행한 『정치지식』, 조선로동당 서울시당이 발행한 것으로 보이는 『당열성자들에게 주는 주간보』, 민족보위성 전투훈련국이 발행한 『군사지식』 4종이다. 『선동원수첩』은 1950년 1월, 『군사지식』은 1950년 2월에 창간되었다. 『정치지식』과 『당열성자들에게 주는 주간보』는 각각 1952년, 1950년 8월에 창간되었다. 『선동원수첩』, 『정치지식』, 『당열성자들에게 주는 주간보』는 선전선동 잡지로 분류된 잡지들이고, 『군사지식』은 ‘각 병종 종합잡지’로 분류된 잡지로 전술, 전투훈련, 강좌 등으로 지면을 구성했다. 군인을 대상 독자로 하는 잡지다. 『당열성자들에게 주는 주간보』는 조선로동당 서울시당이 발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1950년 8월에 발행한 1, 2, 3호가 노획문서에 남아 있다.

1946년에 발행한 잡지 중 창간일이 가장 이른 것이 1946년 1월에 나온 『어린동무』다. 이 잡지는 시기별로 발행사가 아동문화사, 어린이신문사, 교육성 교육국 아동도서 편집부로 바뀌면서 지속적으로 간행되었다. 발행사의 변화는 일정한 의미를 지닌다. 아동문화사는 아동문학 등 어린이용 도서를 출판하는 동인들이 차린 출판사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것을 이어받은 어린이신문사는 『어린이신문』과 『아동문학』을 발행했다. 그런데 이 잡지를 정부가 들어선 뒤 교육성 교육국 아동도서 편집부가 이어받았다. 즉, 동인지 형식으로 시작한 잡지를 최종적으로 정부 관련 부서가 계승하여 출판을 이어갔다.

그 다음 이른 시기에 창간된 잡지는 『문명상업과 소비조합』이다. 이 잡지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이하 ‘임시인위’) 상업국과 북조선 소비조합이 공동으로 1946년 4월에 발행한 격월간 기관지인데 부수도 10,000부나 된다. 꽤 이른 시점에 창간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문지치고 발간 부수가 적은 편이 아니었다. 전문지는 대부분 3,000~5,000부 정도를 발행했다. 해방 직후의 경제적 혼란은 일제의 패망에 따른 엔 블록 경제권의 해체와 생산·유통 구조의 붕괴로 초래되었는데, 생산 감축과 유통 질서의 붕괴로 무엇보다 일상적인 경제생활이 큰 위기를 맞았다. 그 기저에는 식민지 경제구조가 남긴 산업구조의 파행성이 자리했던 만큼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제의 식민유제를 극복하고 새로 수립될 국가의 사회경제적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제반 개혁이 필요했지만 일상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 조치들 또한 절실했다. 특히 유통 기구의 붕괴로 인한 경제

적 혼란의 극복과 새로운 유통 질서의 마련을 위한 조치가 시급했는데, 남이고 북이고 그 해결책의 하나로 주목한 것이 협동조합 또는 소비조합이었다.<sup>9)</sup>

북한에서 소비조합의 중앙 조직이 결성된 것은 1946년 5월이었다. 5월 20일 창립대회를 통해 조직했다고 알려졌는데, 이 잡지 창간은 4월이고 북조선 소비조합과 임시인위가 공동으로 발행했다. 4월 17일 임시인위와 북조선공산당, 그리고 협동조합 대표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그 직후 발간한 것으로 보인다. 노획문서에는 창간호가 남아 있지 않아 아쉬운데 잡지 발간은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났던 협동조합 또는 소비조합 결성 움직임에 의지하면서 이를 활용하여 새로이 유통체계를 수립하려는 북한 당국의 움직임이 맞물려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sup>10)</sup> 잡지는 1948년 1월에 북조선소비조합이 『소비조합』이라는 새 기관지를 만들어 분리하자 『문명상업과 지방산업』으로 제호를 바꾸어서 북조선 인민위원회(이하 ‘인위’) 상업국 기관지가 되었다. 1948년 11월 다시 『민주상업』으로 제호를 변경하여 상업성 기관지로 발행했다.

〈표 3〉에서 제시했듯이 노획문서 소장 잡지들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종합이론잡지 2종, 종합대중잡지 2종, 화보·만화 잡지 4종, 시사잡지 3종, 선전지 6종, 교양지 5종, 어린이 잡지 3종, 사회단체 발행 잡지 6종, 문예지 6종, 학술지 5종, 부문 또는 전문 잡지 20종이다. 화보·만화 잡지는 그림, 사진, 만화 등을 활용했지만 대중용 잡지였고 그렇게 보면 종합대중잡지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 ‘종합’이라는 수식어는 다루는 주제 범위가 어느 한 분야에 한정되지 않은 종합적 성격을 가지거나 여러 주제 범위를 다룬다는 의미일 테고, ‘이론’은 정치이론 또는 정치교양을 의미하며, ‘대중’은 조직되거나 조직되지 않은 대중 모두를 의미

9) 이주호, “1945~1948년 북한 소비조합 정책의 전개.” 『역사와 현실』 96, 2015, pp. 299~306. 해방 직후 북한의 소비조합 활동과 관련한 연구로는 이준희, “북한의 ‘사회주의 상업’ 체계 형성(1945~1958).”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22; 김성보, “해방 초기 북한에서의 양곡유통정책과 농민.” 『동방학지』 77·78·79, 1993; 김재웅, “북한의 민간상업 통제정책과 상인들의 대응(1945~1950).” 『한국근현대사연구』 55, 2010 등을 참고.

10) 노획문서에는 1947년에 발간한 몇 호의 잡지가 남아 있다. 『조선대백과사전』은 이 잡지의 기본 임무를 “상업 부문에서 이룩한 과학기술 성과와 기술혁신 자료들을 소개 선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독자 대상을 “상업 부문과 편익봉사 부문, 사회급양 부문의 관리 일군들과 기술자, 노동자들, 과학연구 부문과 대학의 연구사, 교원들”로 정리하고 있다. 이 잡지는 『상업』이라는 제호로 지금도 발행되는데, 『조선대백과사전』의 정의는 북한 당국이 이 잡지에 부여한 사후적 일 반화를 보여준다.

하겠지만 하여튼 일반 대중을 주요한 대상 독자로 상정했다.

교양지 가운데 『소년과학』은 어린이 잡지로 분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린이용 잡지가 여러 종 발행되었고, 배포 부수가 꽤 많았다. 학술지로 분류한 『교육과학』은 교육학, 심리학, 교육사 관련 각종 논문을 수록했는데 부문·전문 잡지로 구분한 『인민교육』과 함께 북조선교원문화일꾼 직업동맹에서 펴냈다. 두 잡지 모두 북조선교원문화일꾼 직업동맹 기관지로 발행했고, 굳이 따지자면 후자가 교육자들에게 실무적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고, 전자는 학술적 기초나 이론을 제공하는 구실을 했지만 양자의 계선은 애매하다. 『인민교육』은 북조선교원문화일꾼 직업동맹 기관지로 출발했지만 나중에 동맹과 교육성 공동 기관지가 되었다.

## 2. 종합이론잡지의 주도적 역할

해방 직후 북한에서 간행된 잡지의 종류와 성격을 분석할 때 우선 주목할 것은 이른바 ‘종합이론잡지’의 주도적 역할이다. 종합이론잡지로 분류된 『근로자』와 『인민』은 모두 1946년 하반기에 창간되었고, 발행 주체는 북조선로동당(이하 ‘북로당’) 중앙위원회와 임시인위다. 북로당은 이후 북한 권력기구의 핵심으로 부상하는 정당이고, 임시인위는 1946년 초반부터 진행된 민주개혁의 추진 주체다. 이들은 북한에서 ‘진당·진국·진군’을 추진한 핵심 세력인데, 1946년 하반기부터 그들의 노선과 정책을 해설하고 선전하는 매체를 ‘종합이론잡지’라는 이름으로 당원과 대중들에게 체계적으로 배포했다. 『근로자』는 북로당의 노선과 정책을 이론적으로 해석하고 선전하기 위한 임무를 가지고 창간되었고, 노동자, 농민, 지식인들을 주요한 대상독자로 하여 발행했다. 『인민』은 임시인위, 인민위원회, 그리고 정부 내각의 결정과 법령, 지시들을 소개하고 선전하여 각급 인민위원회들이 그것을 관철할 수 있게 하고, 또 정책 관철에서 모범적인 기관들과 일꾼들의 사업경험을 널리 소개하고 일반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간행되었다.<sup>11)</sup>

두 잡지는 각각 1946년 10월과 11월에 창간되었는데 그 시점은 북조선공산

11) 두 잡지가 가진 자료적 중요성 때문에 두 잡지는 일찍부터 국내에서 자료집으로 간행되었다. 국사편찬위원회, 『북한관계사료집』 13권·37~59권, 1992~2008 참고.

당과 북조선신민당이 합당하여 북로당을 창당함으로써 당의 조직적 기반을 확장한 때였다. 임시인위의 경우 토지개혁, 중요산업 국유화 등 민주개혁의 실시로 정권의 대중적 기반을 확대하고 개혁의 성과를 일정하게 거두던 때였다. 이러한 조직적, 대중적 지지 기반의 확대 위에서 북로당과 임시인위는 한층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념과 정책을 선전할 수 있게 되었다. 당시 간행한 잡지들은 간기와 함께 발행 부수를 왕왕 밝혀놓았는데 『근로자』의 경우 40,000부라고 밝힌 경우가 있다. 『인민』의 발행 부수도 비슷했거나 이보다 많았을 것이다. 『선전원수첩』 등 선전지를 제외하곤 가장 많은 발행 부수로 북한 당국이 두 잡지에 부여한 위상과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노획문서가 소장한 북한 잡지들 가운데 가장 많이 남아 있는 잡지들이고, 6·25전쟁 이전 시기는 모두 남아 있다.

두 잡지의 위상과 역할로 보나 발행 부수로 보나 두 잡지가 잡지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았을 것이다. 해방 직후 북한 잡지들은 대중지, 선전지, 교양지, 전문지, 학술지 등 그 유형이 무엇이 되었든 모두 잡지 발행 당시의 국내외 정세 변화나 그에 따른 북한의 정치적, 사회적 현안과 과제들을 제기하고, 동시에 그러한 현안과 과제의 해결 방안과 북한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기사를 권두언과 사설의 형식으로 제시했는데 두 잡지가 그러한 권두언과 사설 작성 시 준거가 되는 내용과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 ‘이론’을 독점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정부와 북로당이 인민과 당원을 대상독자로 하여 1946년 하반기부터 북한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체계적으로 선전을 했다.

두 잡지의 책임주필은 『근로자』의 경우 태성수, 기석복 등 당시 북로당의 사상·이론과 선전·선동 분야를 담당했던 인사들이다. 태성수는 소련계 2세로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기관지 『정로』 주필과 북조선기자동맹 위원장을 지냈으며 북로당 창당시 중앙위원으로 피선되었다. 기석복은 평양학원 원장과 『로동신문』 주필을 지냈으며 북로당 2차 당대회에서 중앙위원으로 선출되었다. 『인민』의 경우 이청원, 허정숙, 류문화, 정국록 등이 책임주필을 맡았다. 이청원은 임시인위 선전부장을 지냈다. 허정숙은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기관지 『정로(正路)』 발행에 참가했고, 1947년 2월 북조선인민위원회 선전부장이 되었으며, 1948년 정부수립 이후 문화선전상을 지냈다. 류문화는 북한 정부 기관지인 『민주조선』 주필을 지냈다.<sup>12)</sup> 북로당과 북조선인위가 발행하던 신문이 『정로』, 『로동신문』과 『민주조선』인데, 신문 주필을 맡았던 인물들이 두 기구가 발행하던 잡지 주필도

맡았다. 『로동신문』과 『민주조선』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변화를 따라잡으며 북한 당국이 선전해야 할 소재를 제공했다면 『근로자』와 『인민』은 주요 사건과 주제를 정하고, 그것을 당원과 인민에게 해설하고 선전하는 역할을 했다.

종합이론잡지가 북로당과 북한 정부의 노선과 정책을 해설하고 선전하는 기능을 가졌다면 종합대중잡지는 이를 일반 대중들에게 보다 쉽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새조선』은 1947년 12월 10일 창간했고, 민주조선출판사에서 발행했다. 출판사가 조선인민출판사, 국립인민출판사로 바뀌지만 같은 출판사가 이름만 바꾸었을 뿐이다. 간기를 알 수 없지만 대략 3~4개월 만에 다음 호가 발행된 것으로 보아 분기간을 지향한 것으로 보인다. 수록 내용은 종합지답게 국내외 정세와 남한 정세, 경제, 문예물과 교양물, 시 소설 등 문학 작품 등을 두루 다루었다.

『태풍』은 1948년 3월 2일에 창간했고, 태풍출판사가 발행했다. 반월간으로 60호(1951년 4호)까지 발행되었고, 주필은 김민우였다. 김민우는 고경흠(高景欽)의 필명인데 만약 그가 주필이었다면 이남에서 월북한 후 이 잡지 간행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고경흠은 해방 후 1945년 8월 조선공산당(장안파) 결성에 참여했고, 9월 건국준비위원회에 참여하여 조사부 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1946년 5월에 『독립신보』를 창간하여 논설위원이 되었고, 1947년 5월에 근로인민당 결성에도 참여했다. 일제 강점기에 언론 분야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고, 1947년 이후 어느 시점엔가 월북했다.<sup>13)</sup> 『조선중앙연감』(1949년)은 이 잡지를 종합대중잡지로 분류했는데 『조선대백과사전』은 ‘일반정치시사잡지’로 분류했다. 잡지는 주로 남한 정세를 보도했고, 특히 미국의 침략정책과 남한의 사회현실, 우익 정객들의 활동을 비판하거나 우익 정객들의 과거 전력과 치부책, 사생활 등을 폭로하는 기사를 많이 실었다. 기사 중에는 황색잡지나 실릴법한 내용도 없지 않았다. 본격적인 정세 분석이나 시사 잡지를 지향했다기보다 선정적인 폭로 기사도 마다하지 않는 선동용 잡지였다.

화보·만화 잡지도 주 대상독자는 일반대중이었을 테고 그런 면에서 종합대중잡지로도 분류 가능하다. 화보 잡지로는 사진들을 활용하여 편집한 『조선화보』

12) 강만길·성대경 편, 『한국사회주의운동 인명사전』, 서울: 창작과비평, 2014 중 “이청원”, “허정숙”, “유문화” 참고

13) 위의 책 중 “고경흠” 참고

와 그것을 계승한 『조선인민화보』가 있고, 『농민화보』는 실물이 노획문서에 남아 있지 않다. 만화 잡지로는 노동신문사에서 펴낸 『호랑이』와 만화잡지사에서 펴낸 『활살』이 있다. 『호랑이』는 노획문서에 2, 4호가 남아 있는데 각각 1946년 11월 30일, 1947년 8월 31일자 간기다. 그 이후에 계속 발간되었는지 확실하지 않다. 『활살』은 1948년 상반기부터 나온 것으로 보인다. 『활살』의 발행 부수는 10,000부와 15,000부 사이였다.

화보·만화 잡지는 사진, 그림, 만화 등의 형태로 시각적 효과를 강조함으로써 지적 수준이 낮은 독자들도 내용을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호랑이』와 『활살』은 형식, 내용의 측면에서 당시 소련 프라우다사에서 발행한 만화잡지 『악어』(крокодил)가 그 모델이었다.<sup>14)</sup> 『호랑이』와 『활살』은 소련의 매체에 나오는 시사풍자만화, 특히 국제정세를 풍자한 만화 그림들을 그대로 전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악어』에 나온 만화들이 자주 눈에 띈다. 만화는 사물과 현상의 본질과 특징을 과장, 풍자, 상징의 수법으로 흥미롭고 간단 명료하게 보여주는데, 『호랑이』와 『활살』은 그러한 만화의 매체적 특성을 기본적으로 간직했지만 풍자와 해학, 상징보다는 선전할 내용을 그림으로 전달하는데 급급했다는 느낌이 든다.

시사잡지는 『보도』, 『순간북조선통신』과 『순간통신』, 『국제평론』이 있다. 『조선중앙연감』은 『활살』도 시사잡지로 분류했지만 『활살』은 대중잡지에 가깝다. 세 시사잡지는 그들 사이에 일정한 역할 분담이 있다. 『보도』는 정부 기관지 신문을 발행하던 민주조선사가 격월간으로 낸 일종의 해설지다. 다루는 주제가 ‘시사’이지만 대중잡지로 분류할 수도 있다. 『보도』 창간호 「편집후기」에 따르면 『보도』는 민주조선사가 발행한 『국제정보』의 제호를 변경하여 만든 잡지다. 『국제정보』 1호를 오래 전에 내놓았는데, 이제 제목을 바꾸어 국내외 민주주의 발전과 그를 위한 투쟁을 보도할 사명으로 『보도』 제1호를 세상에 내놓는다고 적고 있다.<sup>15)</sup> 이로 보아 민주조선사는 애초에 국제정세를 다루는 잡지의 발행을

14) 노획문서에는 『악어』 잡지가 몇 건 소장되어 있다. 아마 노동신문사나 문화선전성 등에서 구독했던 잡지를 노획한 것으로 보인다. 문건 선적번호 2011-8-70, 2011-8-102 등이 그것인데 미국 국립문서관의 노획북한문서철 문서상자 1069와 1074에 남아 있다.

15) “편집후기.” 『보도』 창간호, 1947. 3. 15, p. 66. 민주조선사가 발행했다는 『국제정보』 1호는 노획문서에서 찾지 못했다.

시도했으나, 방침을 바꾸어 국내외 민주주의 발전 및 혁명운동을 다룬 『보도』를 새로 발간하고, 국제정세를 다룬 별도의 잡지로 『국제평론』 발간을 추구한 것으로 보인다.

나중에 조선중앙통신사로 통합되는 북조선통신사·순간통신사가 발행한 『순간 북조선통신』과 『순간통신』은 시사잡지의 성격을 띠지만 다른 한편으로 통신사가 정리한 일종의 사건일지 내지 주요 문헌을 집대성한 자료집 역할을 했다. 사후적으로 연감 작성의 기초자료로 기능했을 것이다. 북한은 이 잡지를 ‘통신보도잡지’로 분류한다. 매호가 해당 시기의 국내외 주요 사건일지를 제공했다. 『국제평론』은 민주조선출판사, 조선인민출판사, 국립인민출판사, 국제평론사가 이어가며 발행했고, 국제정세를 보도하고 해설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민주조선출판사, 조선인민출판사, 국립인민출판사는 같은 출판사가 이름을 바꾸어 단 것에 불과했고, 나중에 국제평론사라는 전용 출판사를 만들어 간행한 것으로 보인다.

『보도』의 주필 한재덕은 해방 이후 평남 건준 선전부장, 『평양민보』 편집국장,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 서기장, 민주조선 주필 등을 지냈으며, 평양민보 시절부터 김일성 수행기자를 했고, 최초의 김일성 전기라고 할 수 있는 『김일성 장군 개선기』를 썼다.<sup>16)</sup> 『순간통신』 편집인 중 박무는 1938년 10월 조선의용대에 가담하여 조선청년전위동맹 대원으로 항일운동에 참가했다. 1941년 여름 팔로군(八路軍)지역으로 들어가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제3대 정치지도원으로 순덕(順德) 일대에서 항일 무장·선전활동을 전개했다. 그해 말 중국공산당 당원, 화북조선청년연합회 선전부 부원으로 활동했다. 1944년 초 일본군 점령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인에 대한 선전조직 활동을 위해 태항산(太行山) 팔로군 근거지에서 결성된 적구공작반(敵區工作班) 선전부 산하 재료과 과장에 선임되었다. 해방 직후 38선 이북으로 귀국했다. 1948년 3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 10월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되었고, 이후 1956년에 조선중앙통신사 사장이 되었다.<sup>17)</sup>

『국제평론』은 처음에는 김민우(고경흠)가 편집을 맡았다. 김민우가 4집(1947. 10. 30)까지 편집인으로 활동했고, 이후에는 전재경, 이순화 등을 발행인으로 하여 간행했다. 국제평론사가 발행처로 나오는 것은 17호(1948. 12.

16) 한재덕, 『金日成 將軍 凱旋記』, 평양: 민주조선출판사, 1947; “한재덕(韓載德)”, 위키백과([https://ko.wikipedia.org/wiki/%ED%95%9C%EC%9E%AC%EB%8D%95\\_\(1911%EB%85%84\)](https://ko.wikipedia.org/wiki/%ED%95%9C%EC%9E%AC%EB%8D%95_(1911%EB%85%84)))

17) “박무” 『한국사회주의운동 인명사전』 참고

20.)부터다. 이 잡지는 처음에는 국제정세에 관한 조선인들의 평론과 소련의 신문, 잡지에 실린 국제정세 관련 기사를 실었다. 물론 초기부터 소련 기사가 더 많은 지면을 차지했으나 갈수록 『프라우다』, 『이즈베스찌야』, 『신시대』 등 소련의 신문 잡지에 실린 글 위주로 편집되었고, 어느 시점부터가 사설을 제외한 모든 기사를 소련에서 간행된 『신시대』(New Times) 기사를 그대로 번역하여 실는 방식으로 간행했다. 권두 사설은 조선과 주변 정세 변화를 중심으로 하여 조선인이 집필했다. 발행 부수는 7,000부에서 17,000부 사이를 오갔고, 꽤 많이 발행한 셈이다.

노획문서에는 남한에서 나온 『국제평론』이라는 제목의 잡지도 다수 있다. 이 잡지들은 조선산업노동조사소(이하 '산노'), 해방사, 자유출판사 등 발행처가 다양하다. 남한의 경우 1947년 9월 해방사에서 같은 제명으로 1집을 발간했고, 2집부터 4집까지는 자유출판사에서 발행했다. 남한에서 1948년에 나온 『국제평론』 가운데에는 반월간 형식으로 국제평론사에서 나온 것이 있고, 세계평론사에서 비슷한 구성과 내용으로 『세계평론』이라는 잡지가 나오기도 한다. 남한의 정세 변화 때문에 같은 발간 주체가 발행처 이름을 달리하여 출간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양한 출판사들이 비슷한 형식과 내용을 가진 채 국제정세에 관한 잡지를 경쟁적으로 출간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런데 1948년에 남한 신문에 등장하는 『국제평론』 광고들은 대개 간행처가 산노로 되어 있다.<sup>18)</sup> 그 시기에 산노가 펴낸 잡지는 국제정세 변화와 조선의 관련성에 관하여 조선인 필자들이 쓴 글과 국제정세 일반 또는 세계 각 지역 정세를 분석한 소련에서 나온 글들을 두루 실었다. 강문석을 소장으로 하는 산노는 조선공산당 직속 연구기관이었는데, 조선의 산업 및 사회경제에 대한 구체적 조사연구, 조선의 노동자·농민 운동, 기타 일체 사회운동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표방하며 1945년 11월 7일 창립했다. 산노는 자신의 임무 중 하나로 “국제푸로레타리아트 운동과 세계 식민지, 반식민지의 혁명운동 및 민족문제에 대한 조사연구와 그것의 소개”도 제시했는데, 『국제평론』이 그 역할을 담당했다.<sup>19)</sup>

18) 『조선중앙일보』 1948. 3. 5 · 1948. 5. 7 · 1948. 8. 22 등.

19) 姜文錫, “朝鮮産業勞動調査所の使命.” 『개벽』 1946년 1월호(통권 73호, 제8권 제1호), 서울: 개벽사, p. 62. 강문석은 이 글에서 “조선산업노동조사소는 파시즘을 철저히 소탕하고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 건설을 위하여 영웅적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인민대중의 해방전선

남에서 나온 『국제평론』과 북에서 나온 『국제평론』 모두 소련과 동·서 유럽, 신민주주의 제국가의 동향, 전후 식민지 반식민지의 혁명운동 및 미주 지역의 정세 변화 등 국제정세 일반과 각 지역, 국가 정세에 관한 글을 실었는데, 그 출처는 대부분 소련 잡지에 나오는 논문과 기사들이었다. 당시 남과 북의 공산주의자들이 국제정세 인식에서 소련에 많이 의지했던 것을 알 수 있고, 특히 시간이 갈수록 미·소 대립의 격화와 그것이 조선 정세에 끼칠 영향, 중국과 일본의 정세 변화와 동남아시아 제국의 정세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다.

### 3. 선전·교양 잡지의 위상

잡지들 가운데 가장 많은 발행 부수를 기록한 것은 북로당 중앙위원회 선전 선동부가 펴낸 『선전원수책』, 『선전원수첩』이다. 1947년 1월부터 발행한 월간 『선전원수책』은 발행 부수가 30,000~50,000부였다. 5만이라는 숫자는 『근로자』보다 많은 발행 부수다. 수책, 수첩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4×6판 크기의 작은 판형으로 만들었고, 나중에는 손바닥 안에 들어올 정도의 4×6판 절반 크기도 나왔는데 대상독자는 현장에서 일하는 초급 선전일군들이었다. 발간 주체인 북로당이 선전지 발행에 꽤나 공을 들였고, 또 현장의 근로자들을 직접 상대하는 이 잡지를 정력적으로 보급했다.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이 한창 벌어지던 1946년 말에 김일성은 생산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선전원들이 당의 목소리를 제때에 알고 언제 어디서나 선동사업을 기동성 있게 벌일 수 있도록 『선전원수책』을 만들어 보급할 것을 지시했다.<sup>20)</sup> 이 잡지는 쪽수가 수십 쪽에 불과하지만 문제제기 식으로 서너 가지 주제를 설정하고, 그 주제를 알기 쉽게 해설하거나 그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조직적,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서술했다. 예컨대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민주선전실을 어떻게 관리 운영할 것인가” 등의 기초적인 내용들과 그에 맞게 해당 주

에 있어서의 제 활동에 무한한 경의를 보내며 진보적 민주주의 국가 쏘베트 동맹과 영. 미, 등 민주주의국에서의 대중의 제 활동과 제 정세를 조선 민족과 조선 인민대중의 이익을 옹호하는 견지에 서서 그것을 충실히 소개하며, 해설하기를 게을리 아니하려 한다.”고 결의를 다지고 있다.

20) “선전원수책” 『조선대백과사전』.

제를 소화하는 데 필요한 정치선전 자료들을 편집하여 제시하는 이른바 선전선동 잡지다.

『선전원수첩』, 『선전원수첩』은 꽤 효과를 보았던 것 같다. 1948년 2월에는 문화선전성도 『선전원』이라는 잡지를 창간했고, 1949년 10월부터는 『선전자』로 제목을 바꾸어 계속 간행했다. 이 잡지도 발행 부수가 30,000부나 된다. 또 민족보위성 문화훈련국도 1949년 9월에 『조선인민군 선전원수첩』을 발간했다. 정부 주요 부서들이 앞을 다투어 비슷한 형식의 선전 잡지를 발간하고, 부처의 특성에 맞추어 대상독자들을 선정하여 그들에게 맞는 선전 방침과 자료를 제공했다. 이들 잡지는 대중정치 사업을 한층 활발하게 벌이기 위해 선전일군들의 정치실무 수준을 높이고 그들의 활동에 필요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창간했다.<sup>21)</sup>

문화선전성은 1950년 1월부터 『선전원수첩』을 모방한 『선동원수첩』을 발행했고, 6·25전쟁 개전 직후인 1950년 8월에는 ‘해방지구판’도 발간했다. 『선동원수첩』은 전시임에도 불구하고 20,000부를 발행했는데, 전쟁 중에도 당과 정권기관, 군대 할 것 없이 이러한 형식의 잡지 발행에 매우 열성적이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는 전쟁 중인 1952년 4월에 『정치지식』이라는 반월간 선전지를 발간하여 당원들에게 배포했고, 조선로동당 서울시당도 1950년 8월에 『당열성자들에게 주는 주간보』를 발행했다. 선전지는 다른 인민민주주의 국가들도 중요하게 취급하는 잡지였지만 해방 직후 북한은 특히 널리, 다량으로 보급한 것으로 보인다.<sup>22)</sup> 북한은 정치선전의 기초적인 내용들과 자료들을 통속적으로 편집하여 이를 공장과 광산, 농촌, 어촌 등 경제 현장이나 군대의 초급 간부들과 선전원들에게 직접 제공하는 선전선동 방식을 중시했고, 선전원·선동원 수첩류는 이를 실천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선전지가 북한의 주요한 정치적, 경제적, 사상·문화적 의제들을 북한 사회에서 관철하기 위해 조직된 대중들을 대상독자로 하여 발행한 잡지였다면 교양지는 광범한 독자 대중을 상대로 지식수준을 높이고, 자연과 세계, 생활과 실무에

21) 이상호, “선전사업에 있어서 출판물의 위치.” 『선전자』 창간호, 1949. 10. 5, p. 22.

22) 노획문서에는 중국에서 나온 『선전원수첩』도 있다. 山東人民政府 宣傳員手冊編委會 편, 『宣傳員手冊增刊: 繼續鎮壓革命堅決取締反動道會門』, 1951년 5월호, 선적문건번호 2013-2-102. 가 그 예인데 노획북한문서철 문서상자 1246에 들어 있다.

필요한 교양과 지식을 제공할 목적으로 발행했다. 북조선공업기술총연맹이 펴낸 『대중과학』, 도상록이 주필을 맡았던 『자연과학』, 국립인민출판사가 간행한 『과학세계』와 『소년과학』 등이 있다. 『대중과학』을 제외한 다른 세 종의 잡지는 모두 1949년에 나왔다. 이 잡지들은 『조선중앙연감』이 1949년에 발행했다고 지적한 7종의 자연과학 잡지에 포함될 것이고, 대체로 10,000부 내외가 발행되었다. 이들 잡지는 기초과학을 비롯하여 최신과학에 이르는 과학지식과 기술지식을 널리 보급하여 대중의 과학기술 지식수준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대중과학』은 대중과학사가 편집 겸 발행인이고, 『자연과학』은 도상록이 주필이었다.<sup>23)</sup> 『과학세계』는 자연과학편집위원회가 편집을 맡았다. 『소년과학』은 노획문서에서 실물을 확인하지 못했는데, 『조선대백과사전』에 따르면 학생소년들을 위한 과학지식 잡지로 창간되었고, 6·25전쟁으로 발행이 중단되었다. 당시 북한이 내세울만한 세계적인 물리학자 도상록을 『자연과학』의 주필로 내세웠지만 그가 가지는 상징성을 잡지 발행에 이용한 것으로 보이고, 자연과학편찬위원회로 명명된 기구가 이 4종의 잡지 편집을 담당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 네 종의 잡지는 하나의 세트로 간주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자연과학』은 창간호에서 “자연현상을 바로 관찰하고 자연현상을 옳게 해석하며 또 자연현상을 정확히 인식하기 위한 노동자 농민 학생 기타 전체 인민들의 학습과 연구에 이 『자연과학』이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적었다.<sup>24)</sup> 네 종의 잡지는 이 창간사가 밝혔듯이 노동자, 농민, 기술자, 전문가, 학생 등 광범한 대중을 대상독자로 했고, 일반 기초과학 기술 지식, 자연현상 및 자연지리에 관한 과학 상식과 원리, 세계 과학기술 발전 추세 등을 알기 쉽게 해설 소개하는 것이 목표였다. 이 시기 교양지는 대체로 독자들의 지식과 기술, 기능을 높이

23) 도상록(1903. 10. 13-1990. 2. 13)은 광복 후 남북을 통틀어 몇 명 되지 않았던 과학자 중 한 사람이다. 김일성종합대학 물리수학부 초대 학부장(1946년), 연구원 원장(1948년), 물리강좌장(1953년), 핵물리강좌장(1954년)으로 활동했고, 북한의 물리학 부문과 이론핵물리학 분야를 개척하고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했다. “도상록” 『조선대백과사전』.

24) 『자연과학』은 전쟁 중 발간이 중단된 것으로 보이는데, 1976년 12월 15일에 재창간되었다. 『조선대백과사전』은 재창간된 잡지를 ‘자연기초과학교육잡지’로 분류했고, 중학교와 전문학교, 대학 자연기초과목 교원들의 과학적 자질과 교육실무 수준을 높여 주는 것을 기본임무로 한다고 적었지만 1949년에 발행한 『자연과학』은 교육지도 일꾼들을 대상독자로 하기보다 학생과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했다.

기 위한 교육과 계몽을 중시했다.

앞에서 해방 이후 38선 이북에서 어린이 잡지가 꽤 이른 시기에 창간되었고, 『소년과학』까지 포함하면 종류도 4종이나 된다고 지적했지만 어린이 잡지는 유소년들을 위한 교양지로 분류할 수도 있다. 『조선대백과사전』은 어린이 잡지가운데 제일 먼저 나온 『어린동무』를 ‘어린이들을 위한 교양잡지’로 분류하고, 『우리동무』를 ‘인민학교 학생들을 위한 교양잡지’로 분류했지만 이때 『우리동무』는 1966년 4월에 창간한 별도의 잡지다. 1949년에 발행한 『우리동무』는 어린이용 그림책이다. 어린이신문사에서 1947년 7월에 폐내기 시작한 『아동문학』은 아동문학 이론, 평론과 창작을 모두 게재하는 아동문학 연구지였고, 아동문학 건설자들의 공개잡지였다. 이들 잡지는 대개 전쟁 중 발간을 중단했고, 이후 재발간되거나 제호를 바꾸어 어린이 잡지로 명맥을 이은 것으로 보인다. 아동문학 관계자, 전문가들의 노력과 그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지도가 어우러져 그 시기 어린이 잡지 발행을 이끌었다.

노획문서에는 38선 이남에서 나온 어린이 잡지도 있다. 『소년운동』 2호가 그것이다.<sup>25)</sup> 이 잡지는 한국에도 남아 있지 않은 희귀본이다. 이 잡지는 조선소년운동중앙협의회가 1947년 4월 10일에 발행했다. 이 협의회는 1945년 10월 12일 창립했는데, 소년운동관계자, 아동예술가, 어린이 교육 관계자, 보육과 보호 관계자들이 8월 25일 이후 수차 회합하여 만들었으며, 이날 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위원으로는 김래철 김광호 공진섭 홍순익 박노일 유영애 한백곤 최병화 양재호 정성호 백낙영 등이 이름을 올렸다. 협회는 첫 번째 위원회 회의의 안건을 어린이신문 편집회의로 제안했다.<sup>26)</sup> 협회는 1946년 3월 25일 『소년운동』 창간호를 세상에 내놓았으나 “과도기적 현실에 입각한 소년운동에 있어 전반적인 발전이라 말할 것도 없고 소년운동지 한 개나마 계속하는데도 지나친 난관과 참을 수 없는 고민이 있어” 계속 잡지를 내지 못하다가 1년 뒤인 1947년 4월에야 2호를 발간했다. 2호는 ‘초등교육 문제’와 이원수가 쓴 “아동문학의 사적 고찰”을 주요 기사로 취급했다.<sup>27)</sup>

25) 노획북한문서철 문서상자 619, 선적문건번호 2008-9-4.

26) “조선소년운동중앙협의회 결성대회.” 『자유신문』 1945. 10. 16.

27) 조선소년운동중앙협의회, “편집을 마치고.” 『소년운동』 2호, 서울: 소년운동사, 1947. 4. 10, p. 30.

이 잡지는 ‘소년문제 연구지’를 표방했는데 이 협의회가 해방 직후 이른 시기에 결성되었고, 또 ‘소년운동’을 표방하며 소년운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한 데서 보듯이 그 시기 소년문제 또는 소년운동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였으며, 그것을 논의할 수 있는 관계자들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창간호 발간 후 1년 이상 다음 호를 발행할 수 없었던 데에서 나타나듯이 사회적으로 지원을 확보하고 주의를 환기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협의회는 1946년 어린이날 준비 외에는 별다른 활동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sup>28)</sup> 당시 소년문제의 성격이나 소년운동의 전개 과정에 대한 분석이 거의 없는데 남과 북에서 어떤 논의와 활동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4. 사회단체 발행 잡지의 역할과 내용 구성

사회단체 발행 잡지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온 것은 북조선민주여성총동맹(이하 ‘여맹’)이 1946년 9월에 발간한 『조선녀성』이고, 가장 나중에 나온 것은 조국보위후원회(이하 ‘후원회’)가 1949년 10월에 펴낸 『조국 보위를 위하여』이다. 북조선민주청년동맹(이하 ‘민청’) 기관지 『청년생활』, 북조선직업총동맹(이하 ‘직맹’) 기관지 『로동자』, 북조선농민동맹 기관지 『농민』은 모두 1948년 상반기에 나왔다. 민청이 펴낸 『소년단』은 1949년 중반에 나왔다. 사회단체 기관지들은 15,000부 내지 20,000부를 발행했는데 『농민』과 『소년단』이 20,000부를 발행했다.

어느 사회단체나 북한 사회의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여맹의 조직화나 『조선녀성』의 발간이 해방 직후 매우 이른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 이채롭다. 결성 과정이 보여주듯이 각지의 자발적인 조직화 움직임이나 일제 강점기 이래 여성운동을 이끌었던 활동가들의 활발한 움직임도 주목할 만하지만 북로당 역시 여맹의 결성이나 기관지 발행을 증시했고, 북로당과 정권기관의 지원이 여맹 활동의 활성화나 기관지 발행에 일정하게 기여했다.<sup>29)</sup>

28) “해방 조선의 신 명절, 5월 5일 어린이날 준비.” 『자유신문』 1946. 3. 11; 『동아일보』 1947년 1월 29일자에 “少年運動을 再開, 卅日 懇談會 열고 討議” 기사가 있다.

29) 여맹의 초기 결성 과정에 대해서는 강수연, “1945~1950년 북조선민주여성총동맹의 조직과 활동.”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21, pp. 8~19쪽 참고.

주요 사회단체 기관지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발간한 것이 『조국 보위를 위하여』라는 점도 이채롭다. 강령에 의하면 후원회는 “조국보위를 적극 협조하는 전인민의 대중적 사회단체이다. 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토를 보위하기 위한 군사훈련과 인민들이 전취한 민주건설의 성과를 보위하기 위하여 후방 원호 사업을 목적으로” 했다. 후원회는 이를 위해 “(1) 조선인민군대의 강화사업 후원, (2) 군사지식 습득, (3) 과학지식과 발명으로 조선인민군대의 강화에 노력, (4) 반동분자들의 파괴음모로부터 직장 및 농촌과 국가 재산을 방위”하는 것을 자신의 과업으로 설정했다. 1949년부터 북한 사회에서 ‘조국통일독립’과 ‘국토완정’이 공공연히 구호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른바 ‘후방사업’을 조직하기 위한 사회단체가 결성된 것이다. 직맹, 농맹, 민청, 여맹 등 각 사회단체 위원장들이 창간호 앞머리에 축하 인사를 실었다.<sup>30)</sup>

북한의 주요 사회단체들은 모두 잡지를 발행했는데, 주요 사회단체들의 1948년 맹원 수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직맹 맹원수가 약 42만 명, 농맹 약 250만 명, 여맹 약 138만 명, 민청 약 129만 명, 조소문화협회 약 75만 명, 소비조합 약 520만 명, 공업기술총연맹 약 4만 명, 보건연맹 약 4,200명, 농림수산기술총연맹 약 21,000명이었다.<sup>31)</sup> 주요 사회단체 기관지들과 ‘부문 또는 전문기술 잡지’ 목록을 훑어보면 창간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북한의 주요 사회단체들이 모두 기관지를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이들 단체가 포섭한 맹원 수를 합치면 개별적으로 복수의 단체에 중복 가입한 경우를 감안하더라도 그 수치가 당시 북한 사회의 ‘근로인민대중’을 거의 대부분 포괄했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단체 기관지들은 해당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서 지침서 구실을 했고, 맹원들을 대상으로 교양과 선전 사업을 펼쳤다. 사회단체 기관지들은 편집과 내용 구성의 측면에서 일정한 공통성을 가진다. 예를 들어 『로동자』 매호의 목차 구성은 첫 머리에 해당 호가 나오던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간주되는 현안 또는 정치사회적 의제에 대한 김일성의 연설 및 정부의 주요 정책과 관련된 글을 실었고, 이어서 산업현장에 대한 보고와 창의 고안 등 제언, 소련의 산업을 소개하는 글이나 국제직업연맹 소식, 모범 노동자 사례 소개, 직장 내 직맹 사업 추진 및 조직 결성 방안, 노동자들이 투고한 문학작품 등을 실었다. 『조선녀성』,

30) 『조국 보위를 위하여』 창간호, 1949. 10.

31) 『조선중앙연감』 1949년판, pp. 90~94.

『농민』, 『청년생활』도 비슷한 목차 구성을 보이는데 『조선여성』의 경우 논설, 문예, 가정, 소련소식, 지방소식을 고정적으로 실었다. 그 중에서도 지방소식, 여맹 생활단신, 여맹생활, 여맹단신과 같은 고정란들은 각 지역의 여맹 활동을 정기적으로 소개했고 이를 통해 당시 여맹의 대략적인 활동상을 파악할 수 있다.<sup>32)</sup>

사회단체 기관지들은 목차 구성에서 알 수 있듯이 당의 노선과 정부의 정책, 해당 단체 내지 맹원의 과업, 남조선정세와 국제정세, 사회주의 및 인민민주주의 국가들의 동향 등을 주요한 기사로 보도했으나 다른 한편으로 맹원들과 독자들의 반응과 활동을 지면에 꽤 많이 반영했다. 『로동자』가 ‘창의고안’을 통한 생산장성, 경제 절약과 노동 생산 능력 제고, 근로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 제고, 대중적 기술 창안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은 것은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책이라는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노동자들이 일하는 생산현장의 실상이나 그들이 겪는 구체적 애로사항을 전한다.<sup>33)</sup>

사회단체 기관지들이 모두 독자 투고를 장려했는데 『농민』의 경우 영농 체험담, 부락 건설기, 씨름 활동상 등 체험기는 물론이고 시, 콩트, 수필 등 문학 작품 창작도 장려했다. 『로동자』도 독자들로부터 직장소식, 감상문, 질의문답, 창의고안, 노동방식 등은 물론 시, 소설, 희곡, 수필, 콩트, 기행문 등의 원고를 수시로 모집했다. 모든 기관지들이 맹원들의 문학 작품 창작을 강조했다. 독자 투고를 통해 생활 현장과 독자의 목소리를 잡지에 반영하고, 맹원들의 문학작품 창작을 장려한 것은 당시 북한 잡지에 나타나는 공통적 현상이지만 사회단체 기관지들은 이를 특히 강조했다. 사회단체 기관지들에 대한 분석은 매체 자체의 이해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해당 단체 활동의 실상이나 맹원들의 반응과 생활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32) 강수연, “1945~1950년 북조선민주여성총동맹의 조직과 활동.”, p. 6.

33) 북로당 기관지 『로동신문』은 통신원 제도를 통해서 당의 정책과 주장, 결의를 대중들에게 전파하고 관철하는 한편 통신원을 통해서 대중들의 반응이나 그들이 생산현장이나 생활공간에서 부딪힌 문제와 요구 사항을 파악하려고 했다. 잡지의 유통과 보급에서도 이러한 경험을 원용하여 독자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다. 당 기관지 통신망 제도의 운영 방침과 양상에 대해서는 박창희, “해방 직후 북한의 선전선동체제와 근중문화사업(1945-1950).”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20, pp. 80~84 참고.

## 5. 부문·전문 잡지 발행의 확대

부문 또는 전문 잡지 중 가장 먼저 발행된 것은 『문명상업과 소비조합』이고, 1946년 9월에 발행한 『인민교육』과 『조선농업』(후신 『농림수산』)이 그 뒤를 이었다. 『경영계산』이 1947년 11월에 간행되었으나 그 이후 간행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1949년 9월에 발행한 『재정금융』이 창간사에서 『경영계산』을 통합했음을 밝혔다. 상업국 기관지 『문명상업과 지방산업』, 소비조합 기관지 『소비조합』이 1948년 1월, 산업성 기관지인 『산업』이 1948년 8월, 산업성 기관지 『민주상업』이 1948년 11월에 나왔다. 민족보위성 전투훈련국이 발행한 『군사지식』은 1950년 2월에 나왔다. 그 외 나머지 부문·전문 잡지는 모두 1949년에 나왔다. 이 분야 잡지의 발행 부수는 대체로 3,000~7,000부였지만 이른 시기에 나온 『문명상업과 소비조합』과 『인민교육』, 또 『산업』은 10,000부, 때로는 20,000부를 발행했고, 『농림수산』도 많을 때는 8,900부까지 발행했다.

앞에서 『문명상업과 소비조합』을 북조선소비조합의 공식 결성 이전에 창간했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조선농업』과 『인민교육』을 비교적 이른 1946년 9월에 간행한 것도 농업 생산성 증대나 보통교육의 확장이 당시 시급한 경제적, 사회적 현안이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두 잡지는 이 분야의 잡지치고는 발행 부수도 많은 편이다. 『인민교육』은 북조선교원문화일꾼 직업동맹의 기관지로 출발해서 나중에 교육성 기관지가 되는데 보통교육 부문의 교육이론 및 실무 잡지였고, “『인민교육』은 문자 그대로 인민을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 곧 나침반이며 또한 교육자를 무장하는 무기”라고 자임했다.<sup>34)</sup> 『인민교육』, 학술지 『교육과학』, 『소년단』 및 각종 어린이 잡지의 발행, 또 교원문화일꾼직맹을 직맹에서 분리해서 별도의 조직으로 만든 것은 북한 사회가 보통교육과 어린이 교육을 중시하고 각별히 취급했음을 보여준다. 『조선농업』은 농업기술 경제잡지로 처음에는 북조선농업연구협회가, 1947년부터는 북조선농림수산기술총련맹이 월간으로 발행했다. 1947년 6월부터 제호가 『농림수산』으로 개칭되어 농산, 임산, 수산 부문의 기술경제잡지가 되었다. 1950년 3월부터 농맹 기관지 『농민』과 통합되었다.

34) “편집후기.” 『인민교육』 3집, 1947. 4. 10.

『조선농업』과 『농림수산』의 예에서 보듯이 부문·전문 잡지는 대부분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조직이 발행하여 정부 관련부서가 계승했고, 1949년 이후 발간된 잡지는 정부 관련부서가 발행인으로 나선 경우가 많았다. 특히 1949년 인민경제 2개년계획의 실시가 부문·전문 잡지를 대거 발간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아래 『공업지식』의 창간사가 그러한 사정과 이 분야 잡지의 발간 취지와 편집 방향을 잘 보여준다.<sup>35)</sup>

기술과 인제가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이 기본지침과 본 연맹의 강령으로 표현된 ‘기술문제 해결의 원화와 기술자의 양성을 기한다’라는 본지(本旨)에 따라서 산하 기술연맹 맹원들에게 부분적이거나 도움을 주고 교양을 주어서 … “공업지식”은 공업기술에 관한 출판사업으로서 자주적 민족경제의 토대를 공고히 하는 데 있어서 기술자들에게 맡겨진 기술상 문제들을 과감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을 믿으면서 아래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나오게 된다.

1차 편집위원회는 이를 규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

첫째, 기관지적 성격을 본지로 하되 공업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인 성능을 발휘할 것이며, 둘째, 선진기술의 유도 및 소개와 각 분과위원회의 활동상황이 나와야 하며, 셋째, 기술인의 체험기와 현지보고를 비롯하여 창의고안, 취미기술 등이 작철(作綴)되어야 할 것이다.

부문·전문 잡지는 해당 분야 행정 일꾼들과 관련 분야 일꾼들의 실제 사업을 지원하며 교양하는 역할을 했다. 로동성에서 발행한 『로동』은 창간사에서 “로동 행정 일꾼들의 실제사업을 방조하며 교양하는 로동성 기관지”이고, “모든 행정 일꾼뿐 아니라 오늘 로동행정의 명확한 인식을 가져야 할 모든 공장 광산 기업소의 선진로동자 사무원 로동부문 일꾼 및 관리자들의 절대한 요구에 응하려는 것”이라고 발행 취지를 밝혔다.<sup>36)</sup> 『로동』 창간호에 실린 글은 모두 로동성내 일꾼들의 손으로 집필되었다. 정부 각 부서가 발행한 『재정금융』, 『체신』과 『민주체신』, 『司法時報』, 『산업』, 『인민체육』, 『로동』, 『인민보건』, 『계획경제』, 『군사지식』 등은 분야만 다를 뿐 모두 동일한 취지로 발간되었다.

35) “창간사.” 『공업지식』 창간호, 1949. 1.

36) “창간사.” 『로동』 창간호, 1949. 3.

## 6. 문예지와 학술지

문예지로 분류한 6종의 잡지는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이하 ‘문예총’), 북조선 예술총연맹, 북조선문학동맹, 조쏘문화협회 등 북한의 문학가, 예술가, 문화인 단체들이 펴냈다는 점에서 이를 통해 해방 직후 북한 문학계, 예술계의 동향은 물론 문화계를 움직여 나간 지식인들의 활동상을 살필 수 있다. 이기영이 6종의 잡지 중 『건설』, 『조선문학』, 『조쏘문화』, 『조쏘친선』 4개 잡지에 발행인으로 이름을 올린 것이 눈길을 끄는 데 그가 문화계의 상징적 대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sup>37)</sup> 안함광 역시 『문학예술』, 『조선문학』 주필로 이름을 올렸다.<sup>38)</sup> 이기영은 해방 직후 문예총 명예위원장으로 선출되었고, 1945년 11월 조쏘문화협회 중앙위원장이 되었다. 안함광은 문예총 제1서기장이었다.

조쏘문화협회 기관지인 『조쏘문화』는 1946년 중반에 창간되었다. 창간호 제명은 『문화건설』이었고, 2집부터 『조쏘문화』로 제명을 변경했다.<sup>39)</sup> 처음에는 분기간으로 출발했으나 1948년까지 격월간으로 간행되었다. 1949년 1호는 ‘계간 이론잡지’를 선언했으나 1949년에는 월간으로 매월 5,000부를 발행했다. 1949년 10월에 『조쏘친선』을 발간함으로써 협회는 두 종류의 기관지를 발행했다.

37) 이기영은 해방 후 강원도 인민위원회 교육부장,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 명예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1945년 11월 조쏘문화협회 중앙위원장, 1946년 2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위원이 되었다. 8월 친선사절단의 단장이 되어 소련을 방문했다. 1948년 8월 제1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출되었고 9월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이 되었다. 1953년 9월 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선임되었다. “이기영” 『한국사회주의운동 인명사전』.

38) 안함광은 1946년 3월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 결성과정에 참여하고 제1서기장에 선임되었다. “민족문화론.” “민족문학의 이념과 과업.” “민족문화재론.” “의식의 논리와 문예창조의 본질적인 제문제.” 등의 평론을 발표하여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의 문학이론 체계를 구축했다. 1947년 조기천(趙基千)의 서사시 『백두산』에 대해 객관적 현실에 기초를 두지 않은 혁명적 낭만주의 경향을 갖고 있다고 논평하여 당의 공식적 문예정책과 충돌했다. 6·25전쟁 이후 평양사범대학 조선문학 강좌장을 지냈다. 1955년 김일성종합대학 어문학부장, 조선문학 강좌장이 되었다. 1957년 당내 숙청에 연루되어 문학활동을 중단 당했다. 1960년대 중엽 복권되었으나 이후 주체문학에 반대하여 다시 숙청되었다. “안함광” 『한국사회주의운동 인명사전』.

39) “본기관지 題名은 본시 『문화건설』이었으나 문화건설은 이와 흡사한 제명의 다른 잡지가 있어서 독자 여러분이 혼동할 염려가 있고, 또 본 협회의 특색을 표현함에 다소 부족한 감이 있어서 본 제2호부터 『朝鮮文化』로 개제하였으니 양해하심을 바라는 바이다.” “편집여담.” 『조쏘문화』 2집, 1946. 9.

『조소문화』는 1952년 초부터 주간 신문으로 발간되었고, 책임주필은 립화였다. 『조선중앙연감』이 『조소문화』를 문예지로 분류한 것이나 창간호 제명이 『문화건설』이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초창기 『조소문화』는 ‘소련의 선진문화’ 유입 창구이자 확산의 매개였다기보다 문화인(지식인)들의 현실 인식과 소련 인식 내지 소련관을 보여준다. 협회에 대한 최근의 연구도 협회가 지식인 중심의 문화 교류 기구에서 대중단체로 탈바꿈하는 과정을 추적했지만 역으로 그러한 탈바꿈이 기관지에 어떻게 반영되고, 또 어떤 논조 변화나 내용상의 변화를 초래했는지 보다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sup>40)</sup>

『건설』은 문예총이 펴냈지만 종합대중잡지에 가깝다. 정치, 경제, 문화, 국제, 창작 작품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글을 실었다. 문인들이 시, 소설 등의 창작 작품뿐만 아니라 중요한 정치사회적 현안과 국내외의 주요 정세를 해설하는 기사들을 집필했고, 그런 면에서 문예총이 대중 계몽 차원에서 만든 잡지라고 할 수 있다. 다른 문예지들도 마찬가지로이지만 이 잡지도 작가들을 각지로 파견해서 보고문학 내지 생산현장의 실정을 담아내는 작품들을 잡지에 실기 위해 노력했다. 또 ‘건설을 위하여’ 독자들의 보고문학과 농촌 미담 원고를 보내주기를 독자들에게 요청하고 있다.<sup>41)</sup>

『문학예술』, 『문화전선』, 『조선문학』은 문예총과 문학동맹이 펴냈지만 그 중심은 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대백과사전』은 잡지 『조선문학』을 표제어로 하여 세 잡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소개했다.

잡지 『문화전선』은 처음에 북조선예술총련맹에서, 다음 해 제4집까지는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에서, 제5집부터는 문화전선사에서 국판 분기간으로 발행되었다. 1947년 9월부터 잡지의 제호가 『조선문학』으로, 1948년 4월부터 『문학예술』(1949년부터 월간)로 개칭되었다가 1953년 10월부터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잡지로 되면서 다시 『조선문학』으로 되었다.<sup>42)</sup>

40) 류기현, “1945~1950년 朝鮮文化協會의 조직과 활동.”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2016 참고.

41) “편집을 마치고” 『건설』 3, 1947. 2.

42) “조선문학.” 『조선대백과사전』.

노획문서에 소장된 잡지들 실물을 보건대 이 설명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문화전선』이 『조선문학』으로 『조선문학』이 다시 『문학예술』로 순차적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문예총이 간행한 『문화전선』을 이어서 1947년 9월 북조선문학동맹 기관지로 『조선문학』이 창간되었고, 『문학예술』은 문예총 기관지로 『조선문학』은 문학동맹 기관지로 병존하다가 1953년 10월부터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의 기관지로 『조선문학』이 간행되었다. 세 잡지는 문예 이론과 평론, 창작 작품들을 두루 실었고, 소련 문학 평론 번역과 소련 및 신민주주의 국가들의 작품과 작가도 소개했다. 『문학예술』의 경우 1949년 후반부터 작품평도 신기 시작했다. 세 잡지 모두 해방 직후 북한 문학계와 문화계 이해를 위해 내놓을 수 없다.

학술지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에 발행된 것은 1948년 7월에 나온 『력사제문제』였다. 『조선어연구』, 『경제의제문제』, 『교육과학』, 『문화유물』 등 나머지 4종은 모두 1949년에 발간했다. 『경제의제문제』는 “김일성대 경제법학부에서 정치경제학을 연구하고 있는 일꾼들이 중심이 되어 소련의 경제잡지 『경제제문제』와 『계획경제』를 주요한 대본으로 삼고, 기타 출판물 중에서도 경제 문제 중 우리가 긴급히 수입 소화하여야 할 제 논문 기사를 선택하여 이것을 번역 게재하는 동시에 우리를 자체의 노작도 편입시킬 의도를 가지고” 발간했다.<sup>43)</sup>

창간호 간행사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제의제문제』는 소련 경제잡지의 기사와 논문들로 지면을 채웠고, 『교육과학』은 당대 교육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이론적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잡지다. 주로 교육학, 심리학, 교육사 관련 논문들을 수록했다. 나머지 3종의 학술지는 조선 어문과 조선 역사를 연구하는 잡지다. 해방 직후에 나온 최초의 몇 안 되는 학술지들이 조선어와 조선 역사에 집중되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발행 부수 또한 작지 않다. 『력사제문제』는 20,000부, 『조선어연구』는 15,000부를 발행했다. “우리 말과 글에 대한 지도적 역할을 할 만한 잡지가 절대로 필요하다. 누구보다도 국어 교육을 맡은 교육자에게 긴급히 요구된다. 우리 말과 글을 연구하는 연구자에게, 다른 한편으로 일반으로 문필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라는 이극로가 쓴 『조선어연구』 창간사는 우리 말과 글 연구의 절실함과 긴급성을 잘 보여준다. 세 잡지의 발간은 ‘우리 문

43) “간행사.” 『경제의제문제』 창간호, 1949. 4. 25.

화와 역사' 연구의 1차적 필요성과 중요성에 기반하고 있다. 『조선어 연구』는 현대 한글과 고문에 대한 다양한 논문들을 실었고, 『력사제문제』는 조선 역사에 관한 다양한 논문들과 소련의 역사 이론을 소개하는 글들을 주로 실었다. 수록 논문들을 보면 『력사제문제』는 민족해방투쟁사 등 당대사 연구에도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

#### IV. 맺음말

해방 직후 북한에서 발행한 잡지들 가운데 『근로자』와 『인민』이 노획문서에 비교적 충실하게 소장되어 있고, 사회단체 기관지들과 시사 잡지들은 이가 많이 빠져 있지만 굳이 정도를 따지자면 『근로자』와 『인민』 다음으로 충실한 편이다. 그 외 다른 유형의 잡지들은 결호가 더 많고, 손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소량만 남아 있는 경우도 많다. '노획'한 자료를 모아놓은 문서철이라는 수집과 정리의 역사적 특징이 자료의 존재 양태에 그대로 드러난다. 그러나 노획문서철의 해방 직후 북한 잡지 소장 실태 조사를 통해서 해방에서 전쟁에 이르는 시기 북한의 잡지 발간 상황 전모를 이해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추세와 동향, 경향은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잡지에 대한 조사연구는 잡지 해제는 물론 잡지의 종류와 성격 등에 대한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노획'의 특성을 반영한 한정된 자료군이지만 매체 분석을 넘어서서 당대 북한의 정치사, 사회사, 문화사, 지성사 등과 관련하여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 점을 감안하면서 분석 내용을 토대로 해방 직후 북한 잡지의 특징을 정리해보자.

잡지 창간 시점과 발행 부수는 북한 사회의 현안이나 주요 의제를 반영하고, 또 북한 당국(북로당과 정권기관)이 해당 잡지에 부여한 중요도를 짐작케 한다. 1946년에 발간한 『문명상업과 소비조합』, 『조선농업』은 창간 당시 경제적 측면에서 긴급한 현안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게 하고, 『인민교육』과 어린이 잡지의 창간은 북한 사회가 일찍부터 보통교육 확장과 어린이 교육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근로자』와 『인민』의 발간은 북한에 권력기구가 수립되면서 그들의 노선과 정책이 일반 대중에게 체계적으로 선전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당시 종이와 인쇄시설 등 물질적 조건의 확보 여부가 신문, 잡지,

서적 출판을 크게 좌우했는데 북로당과 임시인위가 일찌감치 이러한 물질적 조건을 장악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된 것도 해방 직후 북한의 잡지 발간 경향에 영향을 끼쳤다.

사회단체 기관지 가운데 『조선여성』이 가장 먼저 창간된 것도 이채로운데 발간의 역사적 필요성을 짐작하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 여맹의 조직적 성장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남달랐다는 사후적 평가와도 연결된다. 또 『조국 보위를 위하여』나 『군사지식』의 발간은 북한 사회가 ‘조국통일독립’과 ‘국토완정’ 구호를 공공연히 외치는 1949년 이후의 상황을 반영한다. 1949년부터 부문·전문지 발간이 급격히 확대되는데 경제 부문에서 민주개혁이 일단 성공적으로 수행된 뒤 2개년 인민경제계획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경제와 산업 전반을 아울러 관리·운영 능력의 제고와 인력 육성, 기술 발전 요구가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북한 당국자들은 선전지 발행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선전지를 대량 보급했다. 선전지 수록 내용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고, 그를 통해 당대 북한 대중들의 동향 내지 당대 북한 사회의 현실인식과 역사의식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문예지와 학술지는 북한 문화계와 학계의 주요 관심사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학문의 존재 양식을 보여준다. 또 북한 지식인들의 동향과 활동상을 보여주기도 한다. 북한 지성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들이다.

북한 잡지들은 종합이론잡지, 시사지를 제외하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독자와의 소통 내지 독자의 참여를 강조했다. 위로부터 제시된 노선과 정책이 일반 대중들에게 어떻게 침투되는지 살펴보고, 다른 한편으로 생산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전문인들이나 지식인들이 많이 참여한 부문·전문 잡지나 문예지도 마찬가지인데 그 경우 관계자나 지식인들의 생산현장 참여를 의식적으로 강조했다. 사회단체 기관지들은 독자 또는 회원들의 투고와 참여를 강조했는데, 이를 통해 해당 단체들의 조직 실태와 회원들의 반응을 살펴볼 수 있다.

발간 주체의 측면에서 북한 잡지들은 전문가 집단, 지식인 집단이 내용을 채우는 방식으로 잡지 발행에 참여하고, 또 초기에는 전문가 조직이나 사회단체가 잡지 발간의 주체가 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정권기관과 합작하거나 정권

기관이 발간을 주도하는 식으로 변화한다. 수용자와 독자의 측면에서 북한 잡지들은 뚜렷하고 구체적으로 대상 독자를 상정하여 발행되었다. 해방 직후 북한의 잡지들은 개별 독자들을 유통 대상으로 하기보다 배포망을 통해 체계적으로 보급되었을 것이다. 정권기관의 각급 행정단위와 정당·사회단체들이 조직적으로 잡지를 구독한 것으로 보이고, 그런 면에서 잡지의 보급 체계나 각 단위에서 잡지의 소비와 수용 양상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정당·사회단체, 정권기관 각 단위와 공장, 기업소 등에 설치된 민주선전실이 가장 저변에서 보급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수록 내용과 관련하여 당대 북한의 현실적 필요성과 ‘소련의 선진 문화’가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만나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 이후 북한 역사와 관련하여 전쟁 이전 북한 잡지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지, 전쟁 이후에는 북한 잡지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강만길·성대경 편, 『한국사회주의운동 인명사전』, 파주: 창작과비평, 2014.
- 강수연, “1945~1950년 북조선민주여성총동맹의 조직과 활동.”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21.
- 국사편찬위원회 편, 『북한관계사료집』 1-86, 국사편찬위원회, 1982~2020.
- 국도통일원 편, 『6·25 당시 노획한 북한자료 마이크로필름 목록』, 국도통일원, 1987.
- 김광운, “북한 정치체제 형성 관련 1945-1950년 출판물에 대하여.” 『해방 전후사 사료연구Ⅱ』, 서울: 선인, 2002.
- 김상규, “한국전쟁기 중국인민지원군 노획문서 고찰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美 NARA RG 242 문서군을 중심으로.” 『역사문화연구』 77, 2021.
- 김성보, “해방 초기 북한에서의 양곡유통정책과 농민.” 『동방학지』 77~79, 1993.
- 김재용, “인제군(麟蹄郡) 관련 노획자료 소개.”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논문집』 5, 2005.
- \_\_\_\_\_, “북한의 민간상업 통제정책과 상인층의 대응(1945~1950).” 『한국근현대사연구』 55, 2010.
- 류기현, “1945~1950년 朝鮮文化協會의 조직과 활동.”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6.
- 박창희, “해방 직후 북한의 선전선동체계와 군중문화사업(1945-1950).”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20.
- 방선주, “노획 북한필사문서 해제 (1).” 『아시아문화』 창간호,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1986.
- \_\_\_\_\_, “미국 국립공문서관 소장 RG 242 내 〈선별노획문서〉 조사연구.” 『미국소재 한 국사 자료 조사보고 III』, 국사편찬위원회, 2002.
- \_\_\_\_\_, 『북한논저목록』,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2003.
- 이상호, “한국전쟁기 연합국변역통역국(ATIS)과 북한문서의 노획.” 『역사와현실』 109, 2018.
- 이신철 외, 『동북아 한인 언론의 발자취』,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3.
- 이완범, “해방 직후 북한자료 해제 1 - 북한생산 자료.” 『한국현대사의 재인식 19: 북한 현대사 문헌연구』, 서울: 백산서당, 2001.
- 이주호, “1945~1948년 북한 소비조합 정책의 전개.” 『역사와 현실』 96, 2015.
- 이준희, “북한의 ‘사회주의 상업’ 체계 형성(1945~1958).”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22.

- 정병준, “한국전쟁기 미군이 노획한 ‘북한노획문서’의 구성과 특징.” 『이화사학연구』 62, 2021.
- \_\_\_\_\_, “한국전쟁기 미군이 노획한 북한노획문서 중 북한신문자료의 유형과 특징.” 『통일과평화』 13-1, 2021.
- 정용욱, “한국전쟁시 미군 방첩대 조직 및 운용.” 『軍事史 研究叢書』 第1輯, 國防部 軍史 編纂研究所, 2001.
-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연감』, 1949년 · 1950년 · 1951~52년.
- 조성훈, “미국 국립문서보존소 소장 전쟁이전 북한 경제관련 자료 연구.” 『해방 전후사 자료 연구II』, 서울: 선인, 2002.
- 최영수, “북한정권 초기의 기록관리제도 - 한국전 노획문서와 관련하여 -.”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기록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3.
- 한봉석, “미군 노획문서로 읽는 해방 이후 북한 여성 수행성의 조건들과 ‘봉건성’.” 『한국 근현대사연구』 97, 2021.
- The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Service,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Annotated Lists: Records Seized by U.S. Military Forces in Korea (Records Group 242 National Archives Collection of Foreign Records Seized, 1941~)*, Washington D.C., 1977.
- 『동아일보』, 『로동신문』, 『자유신문』, 『조선중앙일보』,  
『건설』, 『경제의제문제』, 『경영계산』, 『공업지식』, 『교육과학』, 『군사지식』, 『근로자』,  
『과학세계』, 『계획경제』, 『농림과학』, 『농림수산』, 『농민』, 『농민화보』, 『대중과학』, 『력사  
제문제』, 『로동』, 『로동자』, 『문명상업과 지방산업』, 『민주상업』, 『민주체신』, 『문화유물』,  
『산업』, 『선동원수첩』, 『선전원』, 『선전자』, 『선전원수책』, 『선전원수첩』, 『소년과학』, 『소  
년단』, 『소비조합』, 『새조선』, 『새 삼천리』, 『아동문학』, 『어린동무』, 『우리동무』, 『인민』,  
『인민교육』, 『인민보건』, 『인민체육』, 『인민항공』, 『자연과학』, 『정치지식』, 『조국 보위를  
위하여』, 『조선녀성』, 『조선농업』, 『조선어 연구』, 『조선인민군 선전원수책』, 『조선인민화  
보』, 『조선화보』, 『조쏘문화』, 『조쏘친선』, 『재정금융』, 『청년생활』, 『체신』, 『태풍』, 『호랑  
이』, 『활살』, 『報道』, 『旬刊北朝鮮通信』, 『旬刊通信』, 『國際評論』, 『文學藝術』, 『文化戰線』,  
『朝鮮文學』, 『文明商業과 消費組合』, 『司法時報』.

## Abstract

A Study on North Korean Magazine Right After Liberation:  
Focusing on Magazines in 'Captured North Korean Documents',  
taken by US Army during the Korean War

Yong Wook Chung(Chair Professor, Department of Histor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article introduces the magazines published in North Korea immediately after liberation among the 'Captured Korean Documents' held by the National Archives II of the United States through an archive research, and then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contents, and historical value of the magazines by classifying them by type. The captured documents are various records captured by the US military during the Korean War, and they are a treasure trove of modern Korean history data that contain diverse and extensive literature that allows us to understand the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of North Korea after liberation, as well as the trends of the North Korean military during the Korean War. This article divides the types of magazines published in North Korea into 11 categories: (1) theory magazines, (2) popular magazines, (3) pictorial magazines, (4) current affairs magazines, (5) propaganda magazines, (6) liberal arts magazines, (7) children's magazines, (8) magazines published by social groups, (9) literary magazines, (10) sectoral or specialized magazines, and (11) academic journals, and analyzes the publication status,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each. In terms of the publisher, North Korean magazines were published by groups of experts and intellectuals filling in the content, and in the early days, professional organizations or social groups took the lead in publishing magazines. However, as time goes by, they changed to collaborating with government agencies or government agencies taking the lead in publishing. North Korean magazines would have been distributed systematically through distribution networks rather than targeting individual readers.

Keywords: Captured North Korean Documents, North Korean Magazine,  
Theory Magazines, Popular Magazines, Current Affairs Magazines,  
Propaganda Magazines

투고일: 2024년 12월 31일, 심사일: 2025년 1월 31일, 게재확정일: 2025년 2월 18일